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이성형	2	청년부	임지영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한나전도회 월례회 겸 야유회 / 21일(금) 오전 9시 교회 출발(국립수목원)
2. 에스더전도회 월례회 / 21일(금) 오전 11시 802호

◆ 알림

1. 금일 세례식 실시 - 금년도 두 번째 세례식인 4월 세례(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2. 이반주 심방 일정 / 2-9, 2-10, 3-8, 5-7, 7-1, 7-3다락방
3. 강남노회 담임목사 수련회 / 수련회 일정 4월 17일(월) - 20(목),
손달익 목사 참석 일정 19일(수) - 20일(목)
4. 70인전도대 노방전도 일정 / 16일(주일) 마리아전도회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19일(수) 에스더전도회 오후 1시 - 2시
22일(토) 모세선교회 오후 2시 - 4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기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영,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작은 이들의 친구 그리스도인 ”

■ 마태복음 25:31-46

신앙은 언제나 진정성을 요구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최고 신앙인으로 자부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도 그들의 신앙에 진정성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진정성이 없는 신앙인들을 마지막 심판 때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로 보셨습니다(마 7:22,23 25:46). 오늘 본문은 그 진정성의 척도를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주일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긍휼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 된 자들이나 차별 없이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계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의 일부는 남겨두게 하고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고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돌봄을 사회적 책무로 주신 것도 독자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계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의 돌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런 장애를 지닌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귀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요 9:3).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은 만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한 존엄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인간 존중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의 근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작은 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려는 자세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 오늘의 작은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할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과정에서 생기는 소외된 형제자매들입니다. 빈곤 계층, 장애우들,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자들 등입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자기 삶의 유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벗어 도어야 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천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고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Diakonia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란 책에서 저자는 ‘과거에 있었던 사랑의 승리는 미래의 사랑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펜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행복은 신기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약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역사 속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문제는 고도의 문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적응 속도가 느리고 사회발전 속도는 가속화되면서 더욱 삶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의 고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들의 생명 나눔 친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 신앙적 진정성의 표준

주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 태도를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신앙의 진정한 표준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목민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낮에 함께 지내던 양과 염소가 저녁때 우리에게 들어갈 때는 구분되는 것처럼 세상은 낮에는 겉모습만 보이겠지만 마지막 날에 구분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분의 기준으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있는 사랑 나눔과 신앙실천을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정신은 섬김 즉, ‘Diakonia’입니다. 성경은 ‘Diakonia’라는 단어를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섬김에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상호 깊은 이해와 섬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초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구속하십니다. 그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세상길을 걸지만 장차에는 우리 육신까지 온전히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소망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작은 자 사랑이라는 신앙의 진경을 더욱 실천하고 증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서은석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서은석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유충기 장로			

-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 예배로 부름 벤전 1:3-4...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 찬 송 14(1, 4절)... 다 함 께
- * 신앙고백 다 함 께
- * 성시 교육 38(시 92)... 다 함 께
- * 송 영 4 다 함 께
- 기 도 말 은 이
- 찬 송 455... 다 함 께
- 성경 봉독 마 25:31-46...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 봉헌 다 함 께
- * 봉헌송 634... 다 함 께
- * 봉헌기도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 설 교 ...“작은 이들의 친구 그리스도인”... 손달익 목사
- * 찬 송 83...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 예배로 부름 벤전 1:3-4... 인 도 자
- * 신앙고백 다 함 께
-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기 도 말 은 이
-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 교회 소식 인 도 자
- 성경 봉독 마 25:31-46... 말 은 이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작은 이들의 친구 그리스도인”... 손달익 목사
-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 봉 헌 다 함 께
- * 봉헌기도 설 교 자
- * 파 송 찬 양 팀
- * 축 도 설 교 자
- * 후 주 찬 양 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마 25:45)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성구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조원영 목사	장경원 집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125:1-2 인 도 자
- 찬 송 25 다 함 께
- 기 도 말 은 이
- 찬 송 70 다 함 께
- 성 경 창 22:1-14 인 도 자
- 세례식 손달익 목사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여호와 이레” 조원영 목사
- 특별찬양 사 랑 부
- * 찬 송 383 다 함 께
- * 축 도 손달익 목사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김영정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김정순6 권사

- 성 경 행 16:16-26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깊은 옥에 가두었을 때... 현종필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웨스트민스터 홀